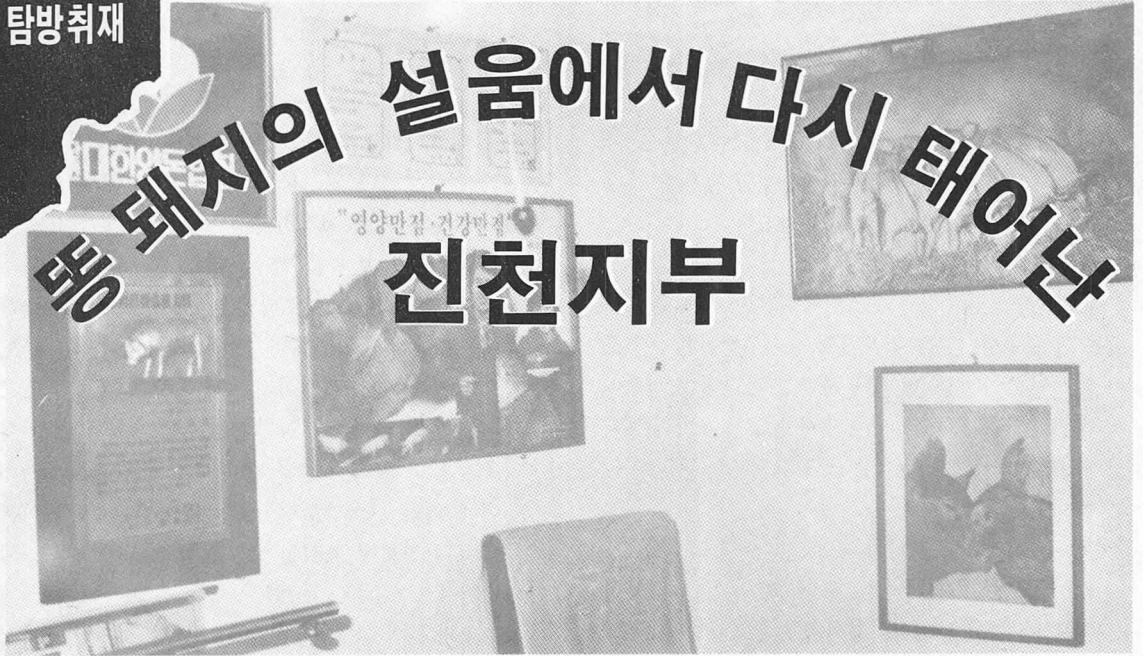


탐방취재

# 백태지의 설움에서 다시 태어난 진천지부



취재 : 이원복기자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40분 정도의 거리인 충북 진천지부(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88-7, 전화 : 0434-33-2616).

시골길의 그 특이한 전원과 향내음을 맡으면서 진천 읍내에 들어섰을때 올림픽 준비로 바쁜 국민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옛부터 진천은 "生居鎭川 死居龍仁(생거진천 사거용인)"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이라 하여 풍수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곳 이라고 평이 나 있다.

버스에서 내려 진천지부에 연락을 하니 서완택 지부장과 이진행 부지부장이 직접 터미널까지 나와기자를 반겨 주었고 구수한 충청도 양반네들의 사투리에 이끌려 진천읍내의 고목나무 옆에 자리잡은 호젓한 지부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지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벌써 여러 회원들이 모여 지금의 양돈을 얘기하고 있었다.

## 창립 7주년에 혈기 왕성한 젊은 양돈인들이 모인 진천지부

1980년 5월 5일 민정기, 서동욱, 신동우, 유기석, 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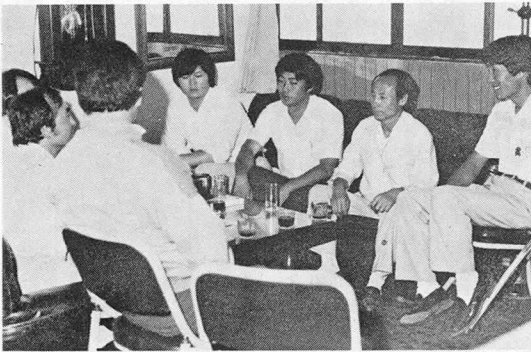


▶ 지부업무를 점검하는 서완택 지부장

석 회원 등이 발기인이 되어 양돈인 친목 단체로 출발 지난 '81년 9월 21일 중앙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진천지부로 명명한 이래 1대 김인택, 2대 김주호, 3대 민정기, 4대 서완택 지부장으로 이어지는 건실한 양돈협회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진천지부는 회원의 평균 연령이 35세로 젊다.

젊은 혈기 덕분인지 취재 도중 칼날같은 질문은 나를 어리둥절 하게 만들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이곳에서 태어난 옛 신라시대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정도였다.



▶ 지부사무실에서 양돈현안 문제를 논의 (노태근 축정계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79년도의 양돈불황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반면에 가장 큰 배움이었다며 다시는 우리 양돈업계에 타격을 줄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지금부터의 양돈의 어려움은 양돈인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항상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는 양돈인”이 되는 것이 진천지부의 자랑이라는 서완택 지부장, 지금도 이리저리 돌아 다니느라 자기농장을 관리할 시간이 없다는 열성파이다.

그러면서도 전임 지부장과 왕성한 혈기의 지부 회원들에 의해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겸손하다.

또한, 서완택 지부장은 모두가 배우고 싶은 열정이 강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너무 아는 것이 없어 지부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민망하다고 말하고 있다.

### 지부의 발전은 회원들의 단합과 진정한 교육에서 시작되었다.

몇년 전만 해도 진천 주위 지역에서 진천돼지는 똥돼지라고 소문이 나 진천돼지는 누가와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 설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진천지부의 회원들.

그러나 지금은 주위의 충남북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 까지 양돈가들이 축산 선진지로 견학을 올 정도라며 이들의 발전된 양돈을 자신있게 털어 놓았다.

이렇게까지 영광이 있기 까지는 이들의 노력은 굉장

한 것이었다.

너무나도 영세했던 양돈업, 이것을 탈피하고자 사료 구입비에서 이익금을 떼고, 찬조금 등으로 협회를 전전공궁 이끌어 가는 중 '79년도의 어두웠던 현실을 겪으면서 눈을뜨고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에 양돈을 모범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쫓아 다니기도 했다.



▶ 회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이로인해 진천지부의 회원이라면 유명하다는 농장은 안 들른곳이 없을 정도 였으며, 특히, 진천내의 선진축산(대표: 이원복)은 그들에게는 가장 큰 도움을 준 선생님 이었다고 한다.

### 이제는 평균산자수 10.91두, 평균생시체 중 1.35kg을 생산해 내는 양돈 선진지역

다시 태어난 진천지부 양돈업계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표효는 대단했다.

특이한 이사진 구성 기획, 홍보, 사료, 약품이사로 매월 각 이사진이 강사를 초빙 양돈의 여러분야를 집중적으로 반복 교육시켜 지부 회원들을 양돈박사로 만들고 있었으며, 양돈정보지도 매월 발간 지부회원 소식과 지역내의 양돈정보를 항상 신속하게 전해주고 있었다.

또한 약품, 기계, 사료 등의 공동구매로 생산비를 절약하고 있고, 특히 품종개량을 실시 그 품종의 성적을 모두에게 공개하여 지부 회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

시커 현재는 등지방두께 1.7cm(♂), 평균산자수 10.91두, 평균생시체중 1.35kg의 양돈기술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업회원들의 기술지도로 진천지역내의 양돈인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고 단합대회도 개최 회원간의 유대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단단한 반석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지부로 꾸며 나가고 있다.

특히, 진천지부의 품종개량은 경이적인 일로 지금은 초산돈이기 때문에 2산, 3산에 가서야 더 좋은 기록이 나올 것이라고 모두들 자만하지 않고 지부를 중심으로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서완택 지부장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등지방두께, 출하일령, 산자수, 평균생시체중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니라며, 이제는 수입개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국제경쟁력에 발맞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육질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 가장 가까운 돈육 수출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을 해 볼 것이라며 의욕이 굉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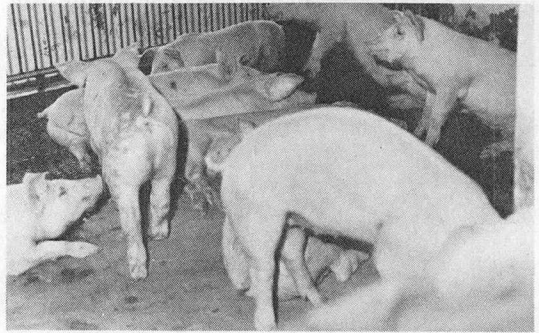
또한, 이들은 현재 대규모 양돈장이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의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제1 지부가 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매월 월례회의때 100%의 참석율을 자랑하는 진천지부, 회원 모두가 300두 이상의 사육 두수를 보유하여 주위의 모든 축산인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진천군청의 축산계장인 노태근씨도 점심시간을 이용 지부사무실에 들러 회원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노고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진천군내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양돈인 자신의 권익을 되찾은 것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였다고 그 옛날을 회고해 주었다.

그리고 노 계장은 현재의 우리가 있어 진천지역의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말고 관민이



▶ 진천지부의 돼지는 회원들을 닮아서인지 똑똑하게 보인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서로 돕는 밝은 사회가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

회원들과 여러 이야기를 마치고 잠깐 시간을 내어 서완택 지부장, 이진행 부지부장, 박성옥 홍보이사의 농장을 둘러보고 깨끗한 시설, 현대화된 장비, 비육이 고른 돼지들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사양 관리상 기록대를 항상 제 위치에 두어 돼지의 능력을 모두 기록하는 것을 보고 남 모르는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취재를 끝내고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에 서완택 지부장은 항상 연구 노력하며 전국 제1의 지부가 되겠다고 굳은 각오를 보였으며, 또한 진천지부가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으며 항상 여러 모로 신경를 써 주는 김철수 충북도 협의회장의 도움도 진천지역의 젊은 양돈인들에게는 옛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었다고…….

잠재력을 가진 진천지부!

지금 시작이라고 하는 진천지부를 보면서 쓰러질 줄 모르는 양돈인의 표본으로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진천지부의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 부 장: 서 완 택

▷부지부장: 이 진 행

▷총 무: 이 규 성

▷이 사: 민정기(기획)

박성옥(홍보)

정우철(사료)

신창균(약품)

▷감 사: 장 형 신

▷고 문: 김 주 호

▷여 직 원: 조 경 옥